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추세와 경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ndency or Trend of the Lifelong Education in the Public Library

이 애란(Ae-Ran Lee)*

〈 목 차 〉

I. 서론	III.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해외
2. 연구의 방법	2. 국내
II.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의 관계	IV. 결론 및 제언
1.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2. 평생교육의 이념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을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의 관계를 통해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 논거를 기반으로 해외 및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추세와 경향을 교육의 내용, 대상, 연계, 기반시설 등을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역할, 평생교육, 성인교육

ABSTRACT

In these days, the public library role for the lifelong education is getting enlarger. Thus the study suggested the ground of argument for the necessity that the public library should be in charge of the lifelong educatio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library and the lifelong education. Based on this argument, the tendency or trend of the lifelong education, which has been performed overseas and domestically, was researched in the aspects of content, object, connection, basic facility and etc. As the result, the basic data needed to establish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the library was suggested.

Key Words: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Role, Lifelong Education, Adult Education

* 울산과학대학 평생교육원 과장(erlee@mail.uc.ac.kr)

• 접수일: 2006년 11월 28일 • 최초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연구자가 평생교육을 직접 경험하면서 갖게 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사서로서 21년 동안 도서관업무를 하다가 생소한 평생교육원 발령을 받고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현정보학을 전공한 '사서'이기에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평생교육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의 평생교육사 취득 1년 단기과정에 등록하였다. 그 해 2004년 3월 평생교육사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중 50% 이상이 공공도서관 사서들이었고, 이들은 2000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이처럼, 다년간 평생교육 업무를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여전히 업무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평생교육사 지도교수의 푸념 속에서 드러난 당시의 현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아직도 평생교육업무를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입이 톡 튀어 나와 있어요. 도서관 초청 강연회에 가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현재의 인원과 시설로 도서관 고유의 업무를 하기도 빠듯한데 인원 충원과 시설지원도 없이 예산 조금 배정하여 평생교육업무를 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불만을 늘어놓는다. (...) 사서들은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해 왔던 업무만을 고수하며 새로운 영역의 업무로 간주하여 배척한다. 교육환경과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서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서관보다 열악하지만 사회복지기관에 평생교육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싶다.

오늘날 평생교육이 비록 국가 주도로 도서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학습자 유인에 성공하여 연간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다. 교육 참여자의 수직상승은 곧 국내·외를 불문코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이 비용대효과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인식하는 결정적 바로미터가 되었다. 앞으로 '교육'을 매개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게 되면 '도서'와 '정보'를 매개로한 '정보 제공'과 '평생교육 제공'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져 공공도서관의 이용촉진과 이미지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해야 할 사서의 인식이 낮고 더욱이 평생교육학자의 날카로운 지적도 안타까웠다. 그래서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속내를 들여다 보니 아직까지 뚜렷한 평생교육 체제¹⁾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여 모양새를

1) 윤성빈, 고령화사회의 노인평생교육체계 연구(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1), p.61.이 연구에서 카우프만

갖추는 단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²⁾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을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해외 및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추세에서 드러나는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문헌정보학의 전문 DB인 RISA(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국회 전자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및 석박사학위논문,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BPIA(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ORSA(Korea Resource Sharing Alliance),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한국교육개발원 발간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의 관계를 맺고 있는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평생교육의 이념과 특징,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제기능, 해외 및 국내에서의 평생교육 추세와 경향 등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주요 흐름이나 관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의 관계

1.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1) 국가의 요구 2)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평생교육시장의 변화 3) 성인학습자 및 사회적 요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요구이다. 조금 거시적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거는 국정지표를 통해 우리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다. ‘문민정부’는 세계화와 정보화를 내걸어 ‘공공도서관정보화사업’을 펼쳤으며, ‘국민의 정부’는 ‘지식’을 가치로 내 걸고 ‘지식정보사회’, ‘신지식인’, ‘지식경영’, ‘지식기반사회’ 등의 신조어를 생성시키며 지식열풍을 일으켰다. 당시,

(Kaufman)은 체제(System)를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혹은 상호 관련하여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2) 곽동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제학술발표, 제36권, 2호(2005), p.11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4호)

한 쪐에 자리하고 있었던 ‘평생학습’도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는 화려한 울타리를 배경으로 급부상하면서 2000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1차 평생교육사업으로 국가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하에 전국 광역시·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3개 기관을 2년 기한으로 지정하여³⁾⁴⁾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을 꾀하고자 했다. 뒤 이어 ‘참여 정부’는 ‘혁신’과 ‘지방’을 강조하여 2002년부터 2차 평생교육사업을 연장·시행하면서 총 26개 기관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선정 및 재지정⁵⁾⁶⁾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지방화시대를 열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공공도서관은 1차연도에 23개중 10개(43.48%)이고, 2차연도 26개 중에서 12개(46.15%) 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시·군·구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239개 기관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162개(68%)가 포함되어 전국 514개 공공도서관을 대비로 보면 32%가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 지정 점유율로 보아 평생교육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단위의 국가 수준 그리고 지방단위의 광역시·도 수준 및 시·군·구 수준의 평생교육추진체제⁷⁾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시설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공공도서관의 제 기능을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평생교육시장의 변화이다. 전통적 교육패러다임은 교사중심,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교과서 지식 중심, 보편적·일반적·실증적 내용, 학습모형 중심, 결과중심 평가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교육은 양적 생산을 위한 단편적 지식이나 기술의 암기와 숙달이 요구되는 산업화사회에서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학부인 지식정보화, 세계화, 다변화, 개별화를 중시하는 시대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반인 학습자 중심, 학교중심 교육과정, 생활 경험 중심, 특수적·

-
- 3)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1차 지정기관(2000년~2001년)은 23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5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마포평생학습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대덕대학교 평생교육원(컨소시엄), 금호교육문화회관/조선대학교(컨소시엄), 울산남부도서관/울산대학교(컨소시엄),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수원대, 충청북도 중앙도서관, 천안대/백석대/충청남도학생회관/공주대(컨소시엄), 순천대학교교수원, 전북대학교평생교육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대구대학교평생교육원(컨소시엄), 경상남도교원연수원, 제주학생문화원이다.
 - 4)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선정된 23개 기관은 공공도서관 10개(43.48%), 대학교/전문대학 10개(43.48%), 기타 3개(13.04%)이다.
 - 5)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차 지정기관(2002년~2006년)은 26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7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마포평생학습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대학교(컨소시엄),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인하대학교(컨소시엄), 대전대학교, 금호교육문화회관/조선대학교(컨소시엄), 울산남부도서관, 춘천평생교육정보관,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천안대/백석대/충청남도학생회관(컨소시엄), 순천대학교/동신대학교/담양공도서관(컨소시엄), 전북대학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대구대학교(컨소시엄), 거제평생학습관, 창원도서관(컨소시엄), 제주학생문화원이다.
 - 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선정된 26개 기관은 공공도서관 12개(46.15%), 대학교/전문대학 11개(42.31%), 기타 3개(11.54%)이다.
 - 7) 우리나라는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중앙에는 평생교육센터(2000년 3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설치)를, 시·도 단위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그리고 시·군·구에는 평생학습관을 지정, 혹은 설치하여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정비하였다.

상황적·적응적 내용, 상황학습 모형, 과정중심 평가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교육패러다임에서 는 교사의 수업안내에 따라 학습자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교사는 지원자나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교육과정은 책이나 텍스트 내용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가정, 학교와 같은 사회생활 경험을 결부시키되 온라인 환경이나 도서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범교과적, 총체적, 수평적인 교육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열린 평생교육이다. 이 교육은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에 국한된 형식교육인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시대적, 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 대상의 범위, 내용의 다양화, 시설 및 기관의 확충, 경비지원 등 성인대상의 평생교육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성인기 생애단계인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⁸⁾ 학습자들은 학교 안의 정규교육과정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탈피하여 학교 밖의 비정규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 하므로써 종래의 종료교육(수직교육)에서 평생교육(수평교육)으로의 확대를 통해 종·횡단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평생교육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육내용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며, 각 교육대상의 단계별 교육과정 세분화도 수반되게 되었다. 이 평생교육시설에⁹⁾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한다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은 공공도서관, 각종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백화점, 대학의 평생교육원, 초등학교평생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학원 등이다. 이 기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30~50대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 목적은 취업, 자아실현, 여가활용, 자원봉사, 학위취득 등 다양하다. 이 기관에서 학습자가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 공적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교육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원천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평생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공공도서관은 타 평생교육 기관의 수익사업 일변도와 달리 교육비 부담이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로써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무료교육에 따른 학습자의 참여의식 결여로 인해 유료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일고 있으며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¹⁰⁾ 이와같은 평생교육시장의 변화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평생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어 평생교육의 이념에 기반한 평생교육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8) 최운실 외, "생애단계에 따른 평생교육 체계 모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제19권, 3호(2003), p.303. 이 연구에서 평생교육의 대상은 유아기(취학전 5-6세), 아동기(초등학교에 취학해 있는 6-11세 사이), 청소년기(중등학교 취학기간이 주중인 10대), 성인전기(성인기의 초반 2-30대), 성인중기(성인기의 중반기 4-50대), 성인후기(활동이 축소되는 성인기의 후반기 약 60세 이후)로 생애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9) 이 법에 준거한 시설 유형은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 시설,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 원격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 단체 부설 평생교육 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로 구분된다. 이 외에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의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이 있다.

10) 고병현, "왜 다시 평생교육이어야 하는가? : 평생학습사회, 선언에서 실현으로," 제3회 평생교육국제심포지엄자료,(2004), p.37.

셋째, 성인학습자 및 사회적 요구이다. 2005년 7월 1일 주 40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욕 및 실태 등을 분석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학습자의 과반수(54.7%) 이상은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와 같이 학습자의 요구가 증가한 것은 주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와 지식수준에 의한 빈부격차, 과학기술에 의한 산업과 직업구조의 다변화, 지식 및 정보주기의 단축, 수명연장으로 인한 여성 및 노인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은 학습자의 ‘출생⇒교육⇒(군대)⇒직장⇒은퇴’라는 전통적인 단선적 생애 주기에서 직장인은 보다 복잡한 복선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개인과 가정의 문화적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을 찾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친화적 평생교육기관으로써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접점 구실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평생교육의 이념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가. 평생교육의 이념과 특징

평생교육의 협의 개념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¹²⁾ 광의 개념은 모든 교육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은 사람들에게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계속적 자기 발전을 위하여 사회가 간직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인간이 평생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할 때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는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통해 성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생동안의 교육을 통칭하는 것이다.¹³⁾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한 가지의 용어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학자마다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이 용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Adult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이다.¹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이념은 (1)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2)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선 아니된다. (4) 일정한 평생교육을 이수한

11) 최돈민, 양홍권, 이세정,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참여 실태조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5) 이 연구는 최돈민이 전국 만 25세 이상 64세 미만 남·여 3,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한 결과임.

12)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13) Chennupati K. Ramaiah and A. Lakshman Moorthy, “The Impact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m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als,” *Library Review*, Vol.51, No.1(2002), pp.24-25.

14) H. Jannert, “Studies Librarian : in the Service of Adult Education,”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Vol.36, Pt.1(2003), p.12.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 한편, UNESCO의 평생교육 이념은 ‘존재를 위한 학습’으로써 알기 쉬운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학습을 기둥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학습사회론에 근거한다. 또한 OECD는 일과 학습의 연계모델로서 평생에 걸친 교육시기의 재분배 모델인 순환교육모델을 학습경제론적 관점에서 제기함으로써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균간으로 삼는 평생교육 투자확대 전략화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을 가치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연계모형을 창안함으로써 학습경제론과 학습사회론의 통합적 관점의 평생교육 전략화를 추구하고 있다.¹⁶⁾ 이런 맥락에서 평생교육의 이념 모형은 ① 교육 시기의 항상성과 계속성 ② 교육 장소의 광범성과 무정형성 ③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④ 교육 방법의 다양성과 입체성 ⑤ 교육 대상의 전체성과 평등성 ⑥ 교육 담당자의 다양성과 탈정형성 ⑦ 교육접근 및 교육적 의사소통의 융통성·순환성·쌍방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⁷⁾

한편, 평생교육체제의 변화를 지향하거나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제 특성은 이념 모형에 기저한 5가지가 있다. 첫째, 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으로 전통적 교육관으로부터 탈피하자는 개념이다. 학교교육이 전부라는 학교본위 개념에서 탈피하여 교육의 모든 부문과 양태가 가치적으로 인식되고 학교교육 이외의 여타 교육 범주에까지 실질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항상성은 교육시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균등하게 재분배되고 지속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은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이 주로 혜택 받은 소수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반영하고 그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독점·획득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탈피하여 도시인보다는 농어촌민이나 도서벽지주민, 고학력층보다는 비문해자나 저학력층, 남성보다는 여성, 청년층보다는 성인 및 노년층,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주민의 교육기회 획득과 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과정, 결과에 큰 교육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교육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틀에 박힌 전통적 학교교육 특성에서 탈피하고, 학습자가 교육주체가 되고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학습이나 동시적 배움의 교류가 가능하며, 강의보다는 다양한 교수·학습방식과 학습형태, 학습매체 등을 활용하고 전일제(全日制)와 정시제(定時制)가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연계·공존하는 특성을 지닌다. 다섯째, 교육체제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탈정형성은 기존의 학교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각 교육 체제간의 상호 유기적·탄력적 연계성과 개방성을 확대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정형적이고 폐쇄·경직적인 체제로부터 탈정형적 요소가 가미되어 보다 융통성 있고 다양한 체제로 변화해 나가는 교육체제를 의미한다.¹⁸⁾

15) 평생교육법 제4조.

16) 김영준,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2006), p.218.

17)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시대 평생교육사의 새로운 역할*(서울 : 동원, 2006), p.8.

이상의 평생교육 이념과 특징을 토대로 볼 때 공공도서관은 설립 초기부터 성인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공공도서관이 ‘성인대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도서관의 역사가 오래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은 학습자들이 이용할 자료와 학습 및 문화 공간이 함께 지원되기 때문에 비용대 효과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열린 학습 장소(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문에는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으로 1)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교육을 발전시켜 가도록 해야 한다. 2) 모든 지식분야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3) 표현의 자유와 모든 공공문제에 대해 건설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4)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서 더욱 유능한 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5)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 그들의 창조력과 감상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6) 전반적인 지식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7) 여가 시간을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번영을 증진시키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4항과 제20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성인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자는 성인학습자를 최우선의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운영자들은 일반적인 학습자나 도서관 이용자 모두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성인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단지 물리적 공간과 자료만을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수동적 봉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치, 사회, 인구, 경제의 변화, 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성인교육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교육봉사로 바뀌고 있다.

나.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²⁰⁾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로 ①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②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③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④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⑤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⑥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⑦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⑧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

한편, IFLA/UNESCO 선언문에는 공공도서관의 임무로 ① 어린 시절부터 아동의 독서습관육

18) 이장석, 평생학습시설로서의 백화점 문화센터 운영연구(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4), pp.20-21.

19) Raymond Astbury, “The Public Library of the Twenty First Century : the Key Information and Learning Centre in the Community?,” *Libri*, Vol.44, No.2(1994), p.139.

20)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4항.

2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성 및 강화 ② 모든 수준별 공식교육과 독자적 학습지원 ③ 개인의 창조력 개발 기회 제공 ④ 아동과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조력 자극 ⑤ 문화유산, 예술 감상, 학문적 업적과 혁신에 대한 인지 증진 ⑥ 모든 공연예술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 제공 ⑦ 문화간 교류와 문화적 다양성 장려 ⑧ 구술 전승 지원 ⑨ 모든 종류의 지역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 제공 ⑩ 지역의 기업, 단체, 이익집단에 적절한 정보서비스 제공 ⑪ 정보와 컴퓨터 문해능력 개발 촉진 ⑫ 모든 연령층을 위한 문해퇴치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그리고 필요시 이러한 활동 차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²²⁾

이상에서 공공도서관의 제업무 중에서 사회적 기능을 잘 기술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 선언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에 의해서 설립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기타 지역사회 조직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정보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인종, 국적, 연령, 성별, 종교, 언어, 신체장애, 경제력, 취업상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²³⁾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개인과 집단에게 교육적, 문화적, 정보 그리고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열린 기관이었으며 현재에도 이 목적 수행에는 변함이 없다.²⁴⁾ 다시 말해, 우리나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4항의 공공도서관의 정의와 제20조의 공공도서관의 업무 규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중에서 ‘정보 및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의 수행과 함께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 ‘평생교육센터’로써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전통적으로 자료이용 중심의 정보서비스 기능이라는 본질적 기능 이외에 지역의 다양한 문화센터적 기능을 확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평생 교육 기능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복합적 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III.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

1. 해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추세와 경향은 교육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연계와 관련된 연구인 1) 기초문해교육 2) 소외계층 교육 확대 3) 잠재 학습자 개발 4)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주요 영역하의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문해교육 측면이다. 전술한 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문(1994) 11항과 12항에 의

22) <http://www.ifla.org/VII/s8/unesco/eng.htm> [cited 2006. 11. 10]

23) 김영준, 앞의 글, pp.226-227.

24) Raymond Astbury, Idid., pp.130-131.

하면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의 내용으로 '정보와 컴퓨터 문해능력 계발 촉진'과 '모든 연령층을 위한 문해퇴치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가 및 지원 그리고 필요시 이러한 활동을 착수'한다고 열거하여 문해교육이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임을 일깨우고 있다. 기초문해란 직장과 사회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그리고 수학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⁵⁾ Gibbs는 공공도서관이 문맹율을 없애고 성인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 이므로 학습자들이 문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²⁶⁾

호주는 낮은 문해력이 호주에서 1년에 32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가져오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불량품 생산에 따른 비용증가를 감안하면 손실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Whitlam은 말했다.²⁷⁾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문해교육을 위하여 한 학급을 편성하여 초빙된 강사가 1대 1로 개별지도를 했다. 기본단계에서는 문해 향상 관련 자료를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문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문해에 관련된 적절한 읽기 자료의 제공 및 평생교육 장소 제공까지 하여 교육기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²⁸⁾

미국 공공도서관의 문해교육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문해의 기본 연구와 개발 내용은 1) 성인을 위한 읽기 2) 공공도서관을 통한 성인 문해 향상 3) 성인 장애우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읽기 교육 등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도에 공공도서관은 문해교육 참여도와 교육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44개의 공공도서관 중에 26%가 문해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53%가 문해교육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로 볼 때, 성인 기초교육(Adult Basic Education)²⁹⁾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의 역할로 자리잡혀 공공도서관의 표준 업무로 정립되었다.³⁰⁾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79년 백악관 회의에서 문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도서관 기반의 문해교육을 정립하고, 기타 성인교육을 도서관과 다른 공공교육기관

25) Briony Train, "Building Up or Breaking Down Barriers?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y in Adult Basic Skills Education," *Library Review*, Vol.52, No.8(2003), p.395.

26) R. Gibbs, "Gibraries and Literacy : the Role of the Australian Public Libraries",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Vol.3, No.3, pp.123-128(Pradeepa Wijerunge,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the Expansion of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in Sri Lanka," *New Library World*, Vol.101 No.1155(2000), p.108(cited).

27) Pradeepa Wijerunge,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the Expansion of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in Sri Lanka," *New Library World*, Vol.101, No.1155(2000), p.105.

28) Pradeepa Wijerunge, op., p.109.

29) 기초교육은 기초 또는 필수 교육으로 인간의 만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학습욕구를 확장하고 충족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기본학습욕구(Basic Learning Needs)는 개인, 집단, 사회의 기본욕구와 관련되거나 그것으로부터 유리된 것이다. BLN은 인종,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 BLN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BLN의 구체적 내용은 목적, 환경, 시대 등에 따라 결정된다.

30) Kathleen de la Peña McCook, "Where Would We be without Them? : Libraries and Adult Education Activities : 1966-1991," *RQ*, Vol.32, No.2(1992), p.247.

과 연계시켜 공동 기획과 협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도서관 사서들은 문해교육이 도서관 업무라는 기본 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990년대에 ALA는 도서관이 문해퇴치를 위해 지역사회기관과 동맹을 맺고 가정의 문해를 퇴치하기 위해 가족문해프로젝트로 확대하여 도서관 중심의 문해 프로그램의 영역을 넓혔고 Lyman이 말한 문해의 4단계인 1) 문맹 2) 기본문해 3) 기능적 문해³¹⁾ 4) 성인 문해³²⁾ 등에서 실효성을 거두었다. 특히, 1991년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에서 부시대통령과 알렉산더는 미국 학교의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시 채택한 97개의 결정문항 중에서 도서관과 성인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1) 법률, 규정 그리고 정책 선언문에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이 도서관이며, 도서관이 '미국 2000'이란 운동의 중심지이며 (2) 도서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 2000운동에 도서관 커뮤니티의 참가 (3) 도서관을 성인, 청소년, 가족, 직장의 문해 서비스의 중심지로 지정 (4) 문해교육을 위한 자료와 기술을 개발하고 기본교육에 신 프로그램 개발 등이 결정되면서 문해교육의 장(場)으로 도서관에 정착하게 되었다.³³⁾

영국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성인문해를 퇴치하기 위하여 9개의 지방정부와 4곳의 영국지역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Vital Link³⁴⁾라는 기본능력과 독자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³⁵⁾ 이 프로젝트는 전국문해협회(National Literacy Trust)가 독서캠페인의 일환으로 평생교육과 기본능력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 실시했다. 정부의 기본 전략은 공공도서관과 성인기본능력 교육(Adult Basic Skills Education) 간에 파트너를 형성하는 것이었고 Vital Link가 그러한 협력 모형이었다. 이 모형은 성인문해교육이 공공도서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본능력이 필요한 학습자나 운영할 도서관 직원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Vital Link는 성인문해와 도서관이 연계하여 6개 목표로 1) 성인의 문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독자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2) 성인 독자를 자극·유도·동기를 주고 꺼려하는 독자를 포섭 3) 도서관 서비스와 성인기본교육 부분과의 효과적 연계 4) 도서관의 독자개발프로그램이 정부의 기본문해능력 향상에 미치는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 5)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시행 가능한 지역 모형을 연구·시행하는 것 6) 프로그램 진행 동안이나 진행 후 지원전략과 자료 수집의 범위 제공 등을 설정했다.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도서관과

31) 예를들면, 처음 부모가 된 여성에게 '아기를 위한 '을 제공하거나 '엄마 나에게 읽어 줘'라는 가족문해프로그램을 말하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직업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32) 성인문해는 일종의 '이야기 해 봅시다' 프로젝트로 수백개 이상의 도서관에서 학자가 주도하는 독서토론 모임이다. 도서관에서 독서토론이 실시된 것은 평생학습에서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징표이며, 이것이 바로 Monroe가 강조한 도서관이 인본주의적 가치를 제공하고 예술경험을 위해 필요한 문화적인 문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33) Kathleen de la Peña McCook, Ibid., pp.245-251.

34) Vital Link는 영국 정부 문화·미디어·스포츠 부서의 Wolfson 공공도서관의 기금과 상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은 1997년에 조성되어 5년 이상 138개 기관의 공공도서관에 천삼백만파운드 이상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35) Briony Train, Ibid., pp.394-396.

독자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로 1) 성인 학습자의 용기와 읽기의 즐거움 향상 2) 사람들의 기본능력을 향상하도록 동기화 3) 기타 학습기회의 진행 지원 4) 도서관이 기본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능력 구축 5) 도서관의 지원이 기본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통합 발전 등은 도서관과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와 도서관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낸 훌륭한 모형임이 입증되었다.³⁶⁾

둘째, 소외계층 측면이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기관이어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문화적으로 극소수의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³⁷⁾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교육 영역인 학습장애 치유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였다. 도서관을 견학하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는 주의력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³⁸⁾/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가 있는 학생이 많았다. 이런 청년 학습자의 질환은 성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성인의 주의력결핍장애를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과 자료 전시, 특수한 서지를 교육에 추가, 자격있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온라인 튜터로 개별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수서 사서는 이 자료를 찾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수한 프로그램의 지원은 물론 자료를 구축해서 지원하므로써 공공도서관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³⁹⁾

셋째, 잠재고객 창출 측면이다. 공공도서관의 교육 수혜 대상자는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도서관 이용의 경우, 특정한 장서를 원하는 사회의 전문계층이(전문계층 57%, 일반계층 31%) 주로 이용하고 있듯이 평생교육의 경우에도 현재나 지난 3개월 전에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현재 53%, 3개월전 26%)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과거의 '특정집단' 중심의 교육이나 일부 학습자들의 지속적 프로그램의 참여 보다는 지역의 모든 잠재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의 성인교육센터(VUC : Adult Education Center)는 각 지역별로 설립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평생교육기관이다. VUC의 역할은 성인들의 기초교육 및 보충교육기관으로써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에 설치된 VUC는 성인교육에 관심이 없고 공공도서관

36) Briony Train, op., p.397.

37) Astbury, Raymond, Ibid., p.134.

38) Hallowell과 Ratey는 성인용 ADD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은 아동기의 ADD병력에 조작기술의 어려움, 어떤 일을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것, 꾸물거리기, 주의산만증과 충동성 등을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들 환자는 일생동안 자살, 사고사의 발생율이 높고, 교육수준과 직업위상이 낮고, 반사회적 행동경향이 심하고 추가적인 정신병 증세를 보인다.

39) Lynn Akin · Erin O'Toole, "The Order of the Public Library and the Disorder of Attention Deficit," *Public Library Quarterly*, Vol.18, No.3-4(2000), p.77.

40) Barbara Hull, "Library Learning : What are the Links Between the Public Library and Lifelong Learning?," *Adults Learning*, Vol.10, No.7(1999), p.8.

을 일상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VUC의 교육 의도는 모든 주민 즉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과 기업 등의 학습자들에게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혜택을 주어 지역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VUC는 ICT 능력 개발을 위한 성인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강사와 도서관 직원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컴퓨터 사용, 정보검색, 원거리교육(distant education) 등이다. 이 성인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였으며, 무엇보다 학습자가 정강하고 싶은 관심 영역과 꼭 필요한 과정을 개설했다. 그 결과, 성인교육센터의 참여율은 높아졌고, 공공도서관은 단지 사회적 커뮤니티, 문화센터, 지식·정보센터 등의 장(場) 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들에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급할 수 있었고 또한 도서관은 원거리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¹⁾

영국에서는 2002년부터 변화된 개념의 공공도서관인 아이디어 가게(Idea Store)를 건립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 가게의 설립 취지는 공공도서관과 성인교육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도심지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새로운 공공도서관 서비스이다.⁴²⁾ 이 공공도서관의 주요 목표는 도서관과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 즉 모든 건물디자인과 브랜드는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어 도서관과 학습센터에 학습자들을 머물게 하자는 것이었다. 일단 그들이 도서관내에 있으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교육내용의 전략은 1)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고 싶도록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 2) 지역교육에 부응하면서 학습자중심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3) 도서관과 성인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 등이었다. 아이디어가게의 디자인은 1) 가게 출입이 쉽도록 장벽을 제거하고 출입 절차를 최소화 2)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및 공간 확보 3) 도서관이용과 교육활동은 가게를 통해서 제공하되, 교육받는 학습자는 도서관을 지나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학습자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설계 4) 도서관이기 보다는 소매상으로 인식하도록 와이어로 자료를 전시하고 플라스틱 백안에 포스터 등을 게시 5) 융통성과 적응성이 필수 6) 가게는 대부분 셀프로 해결하도록 고안했다. 특히 학습자서비스의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경험자를 만족시키는 것 보다는 서비스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을 즐겁게 해 주고, 작동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아이디어 가게는 지역주민에게 IT교육, 언어교육, 50대를 위한 요가, 꽃꽂이, 숙제클럽, 아동의 휴가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자 위주의 시설을 조성하여 도서관과 교육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으며, 주민들에게 도서관과 평생교육은 재미있고 멋있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였다.⁴³⁾

41) The British Library, "VUCIBIB : Adult Education in Public Libraries,"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Vol.35, Pt.2(2002), pp.14-15.

42) Heather Wills, "An Innovative Approach to Reaching the Non-learning Public : the New Idea Stores in London," The New Review of Libraries and Lifelong Learning,(2003), pp.107-115.

43) Heather Wills, op., p.120.

넷째, 네트워크 구축 측면이다. 성인들에게 평생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⁴⁴⁾ 평생교육 구축사업은 도서관이 단독으로 지원하기보다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육연계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고스포트도서관(Gosport Library)은 2000년 평생교육과 직업을 위한 국기품질표준을 GAB(Guidance Accreditation Board)로부터 최초로 인정받은 곳이다. 이 승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햄프셔 전역의 고스포트도서관은 성인학습자 주간(Adult Learners' Week) 행사에 맞추어 뉴 햄프셔 전역에 평생교육 프로젝트로 '당신의 인생을 변경해'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⁴⁵⁾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1) 도서관을 평생교육의 자원으로 사용 2) 담당자의 지역 정보제공 서비스 향상 3) L2L(Link 2 Learn) 파트너십과 도서관의 연계 4) 직업과 교육 정보에 관한 인식 향상 등이다. 이 프로젝트가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이 지역의 다른 교육기관인 350개와 파트너십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자원 이용을 증가시켰고 직업과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를 널리 확산시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공공도서관의 자원활용과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무엇보다 프로젝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⁴⁶⁾ 그리고 문해교육에서 전술한 Vital Link도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대표적 네트워크 모형에 속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1999년 성인의 개인 자격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NELL(Network for Lifelong Learning)이라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평생교육을 개혁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협력을 위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성인들이 가능한 거주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세가지 구성요소는 1) 이용자 친화적 교육프로그램 2)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3) 교육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이었다. ① 이용자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교육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수준이나 과정에 따른 시간과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한 개인이나 집단상담은 수업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프로젝트 리더나 공공도서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②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의 목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성인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원조할 위원회와 협력단체도 가담시켰다. 기관간의 협력은 양자간의 이해관계

44) Deirdre Ellis-King, "Adult Continuing Education and Irish Publ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27, No.1(1995), p.7.

45) <http://www.adultlearnersweek.org>[cited 2006. 11. 10] 성인학습자주간은 1995년에 평생교육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학습자의 교육성과를 축하하고 이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국가캠페인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각 지역별로 교육제공자 및 기관들이 해당 주간에 특별히 기획된 행사를 준비하여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제도하는 기간이다.

46) Julie Denyer · Angela Gill · Jan Turner, "Change Your Life? : a Project for Adult Learners run by Gosport Library, Hampshire," New Library World, Vol.104 No.1192(2003), pp.354-359.

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성숙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③ 교육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은 공부하는 장소와 사람을 만나는 장소라는 전통적이고 친숙한 기능에 성인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인 학습자의 희망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밀접한 지역사회의 교육센터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NELL의 성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200% 증가시켰으며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⁴⁷⁾

2. 국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 추세와 경향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1990대 하반기를 토대로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평생교육이 공공도서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두가지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관광부 주관의 문화기반시설평가 사업으로 ‘문화교육’이 있고, 그 다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1~2차에 걸친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의 운영을 들 수 있다.

먼저, 문화관광부 주관의 문화기반시설평가사업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에 걸쳐 전국이후 처음 국가차원에서 공공도서관 평가를 문화관광부가 주관하여 문화기반시설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⁴⁸⁾ 오늘날 평생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한 문화강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인식의 변화와 호응을 얻으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문화학교 사무국이 2003년 폐지되기까지 각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전환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업은 대부분 공공도서관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평가 점수를 받고자 하는 목적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으로부터의 평생교육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고자 거의 유사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모방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이나 독서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양한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⁴⁹⁾ 또한 2000년말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설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 수행과 밀접한 자료봉사와 문학강좌의 개설비율은 전체의 24.5%에 불과했다.⁵⁰⁾

그리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 2차에 걸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평생교육사업은 2000년 평생교육법의 시행조치로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으

47) Ornholt Ruth, "Public Libraries and Lifelong Learning,"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Vol.32, Pt.3(1999), pp.19-23.

48) 곽동철, 전계논문, p.101.

49) 상계논문.

50) 유희윤,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의 함수관계,”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0권, 1호(2002), p.70.

로 지정되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산시켰으며, 평생교육 학습자와 도서관 이용자 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평생교육 학습자와 도서관 이용자가 모두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도 2000년 7월 이후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지정만 했을 뿐, 지원 방안에 따른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간의 역할이 중복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였던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⁵¹⁾

이렇듯, 거의 9년에 걸친 국책사업인 문화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도서관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보다는 다른 평생교육 기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취미와 교양’ 중심의 기초교육에 치중하였다. 그래서 도서관 자료와 시설(공간)을 이용한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중복과정 운영으로 과당 경쟁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도서관 업무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다.

또한 평생교육 참여대상자의 기회 제공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크다.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봉사를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공공도서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는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수의 지역주민만이 실제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이용자층도 특정집단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⁵²⁾ 도서관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의 주부인 ‘특정집단’으로 제한되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더욱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학습자로 남게 되거나 그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강좌를 듣게 되므로써,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를 교육현장으로 유인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다시 말해, 소외계층⁵³⁾을 위한 기초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기 보다는 주간에 시간이 있는 가정 주부들 중심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평생교육생=주부’와 동격이 될 정도로 치우쳐 이들이 강좌의 성격을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수료자의 심화교육 요구에 대한 관리자의 교육연계지원 인식이 낮아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인적자원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21세기의 국부(國富)는 평생교육을 통한 인재개발에 달렸다고 판단하여 국내·외를 불문코 경

51) 최돈민, 서울지역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분석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 요약문에서 발췌.

52) 차미경,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역사회 기반 봉사 확대를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13권, 1호(2002), p.200.

53) 소외계층의 범주에는 가정주부, 장애우, 노인,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쟁적으로 인적자원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내놓고 있다. 이런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 기관은 바로 공공도서관이다. 그 이유는 공적 기관으로써 도서와 정보를 매개로 정보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수반하여 교육 및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대 효과면에서 가장 적절한 교육기관이며, 실제 시행한 결과 이용자 및 학습자의 수직상승으로 성인친화적 평생교육기관임이 입증되어 기관적 이미지도 개선되었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의 맥락관계로 볼 때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내적 환경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을 예워싸고 있는 ① 국가의 요구 ②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평생교육시장의 변화 ③ 성인학습자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직시할 때 공공도서관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접점 구실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구현하되,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기능인 ① 일반적(정보적) 기능 ② 문화적 기능 ③ 교육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요체이다. 평생교육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정보제공 및 문화적 기능 중심에서 법 시행 이후의 교육기능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동향이며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자원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방향성 제고가 요구된다. 세째, 해외 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의 추세와 경향은 교육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연계와 관련된 연구인 ① 기초문해교육 ② 소외계층 교육 확대 ③ 잠재 학습자 개발 ④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교육 내용은 취미 및 교양교육 위주의 기초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기반의 특화프로그램이나 공적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며, 기초과정을 심화과정으로 연계하는 교육체계가 거의 없다. 특히 대상층은 주부 중심이어서 평생교육의 균등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상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문제점을 토대로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생교육 메카니즘을 운영자나 참가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운영, 교육체제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각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조직체제에 따른 법적 및 제도적 정비와 도서관계의 내적 혁신 그리고 운영체제와 관련된 평생교육 예산확보 및 지원 항목의 현실적 재편성,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의 개발과 같은 운영상의 정책적 방향성과 구체적 실무적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교육수준별 교육연계지원체계 구축과 교육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립, 교육체제 평가지표 개발 등이 상호유기적으로 작용되는 체제의 정립은 다른 평생교육기관 보다 경쟁력 있는 교육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